

# ‘사면초가’ 김명수...낙마 ‘초읽기’

■ 박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청와대 첫 회동

박영선 대표 지명 철회 요구에 박대통령 “참고하겠다”

세월호특별법·단원고 피해학생 대입 특례 16일 처리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한 자리에서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 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재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재고해주시사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어 최소 3명의 각료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 ‘소통 정치’ 시도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관건은 야당이 재고를 요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처리 여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 새 총리를 찾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 총리가 세월호 수습 현장을 잘 알고 있고, 유가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게 후속대책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 정례회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한길·안철수 당 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박 원내대표가 건의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가 남북 대화를 위한 5·24 조지의 해제를 건의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확보 등 허용범위에서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야가 통일준비를 함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이에 따라 오는 8월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세월호특별법과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의 특례입학 문제 등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동 모두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을 위한 상생의 국회로 상(象)을 잘 만들어가면 국민께서 크게 박수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11시55분에 끝났다. 예초 예정시간은 45분이었으나 40분이 더 걸려 총 1시간 25분간 회동이 이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진정성으로 호남정치 변화 추구”

권은희 광주 광산을 출마회견...“천정배 선배님 뜻 잇겠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10일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두기만으로는 우리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7·30 광주 광산구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부터 참여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출마로 인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권 전 과장은 “진정성은 밝혀진 진실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의 행동은) 진실을 위한 길이었으며, 그런(진정성 훼손) 우려를 달아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략공천 논란에 대해 권 전 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의 뜻을 듣고 (저를)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 스스로 객관적 시선으로 객관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권 전 과장은 “전략공천으로 인해 시민의 선택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하게 생각한다”며 “선거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드리고, 저의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 개혁정치를 재건하겠다는 천정배 선배님의 문제의식과 다른 출마자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훌륭한 정신과 가치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호남의 개혁정치는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두려움 없이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며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10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10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권 전 과장은 “지난 8일 김한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략공천’에 대해 ‘보은성 공천’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안 공동대표는 권 전 과장에 대해 “살아온 이력이 진정성 그 자체”라고 옹호했다. 그는 “만약 (그 분이) 출세가 목표였다면 판사나 변호사를 했을 텐데 경찰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데 중요하’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사실”이라며 “삶이 증거”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통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박 대통령,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손학규 수원병 출마 선언...“민생을 돌보는 정치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사진) 상임고문은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30 수원병(팔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로 맘 흘렸던 수원은 제 마음속의 영원한 자랑이다. 그 수

원의 자존심 팔달에서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 정치를 열어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손 고문은 “국가 개혁과 민생 정치를 꿈꾸던 정조대왕의 일이 숨쉬는 팔달에 당의 부름을 받아 8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팔달 지역은 ‘함께 잘사는 나라’

라는 제 꿈이 영글었던 곳이고경기도를 맘으로 적시며 저의 혼을 쏟았던 희망과 열정의 출발지였다”고 인연을 내세웠다.

이어 같은 당 박광은 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수원정(영통)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대변인은 “MBC 기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료 28년 간 현장을 누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으로 상식과 원칙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통구민을 만드는 영통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 허동준 불출마 선언...새정치 ‘공천갈등’ 봉합수순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공천을 가까스로 끝마쳤지만,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에 처했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로선 당내 계파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수도권에서 현실로 다가온 야권분열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측근 쟁기 논란”에 정면반박한 안 대표를 향해서도 “안 대표는 계파 수장이 아니라 당 대표이다.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위치”라고 꼬집었다.

지도부는 공천 후유증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송구할 따름”이라며 “활짝 핀 장미로 보답하겠다”고 단락을 호소했다.

안 대표측 문병호 비서실장과 이종걸 의원은 전날 밤 광주로 내려가 공천에서 배제된 천정배 전 의원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권 전 과장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서울 동작을(乙) 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운동권 20년 지기’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 지역의 공천 파동도 일단 봉합 국면을 맞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록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 광안지점 652-9203 | 팔산지점 384-7557 | 주유사업소 720-2880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테크노,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 운영동 방면

**밝은광주안과**